

# 민주통합 지도부 “PK 잡아라”

## “총선 격전지 부상” 첫 지역방문 선택 노무현대통령 묘역 참배 등 민심잡기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18일 4·11 총선의 격전지로 부상한 부산·경남(PK)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는 지난 15일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에서 신임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첫 지역 방문이다. 새 지도부가 부산·경남지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한나라당의 전통적 텃밭인 부산·경남지역부터 민주당 바람을 일으켜 지역구도를 깨고 총선 승리를 이루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명숙 대표를 포함한 문성근·박영선·박지원·이인영·김부겸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는 이날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만났다.

한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묻힌 노력바위 앞에서 “저희는 지역주의를 깨뜨릴 자세로 임하고 있고 부산에서 ‘작은 바보 노무현’들이 생기고 있다”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정권을 교체

할 수 있다는 단단한 각오로 서 있다”고 말했다.

방명록에는 ‘2012년 승리의 역사를 쓰겠습니다’라고 썼다. 권양숙 여사는 이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보람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각오가 돼 있다”며 “승승장구하길 빈다”고 신임 지도부의 건승을 기원했다.

이후 신임 지도부는 부산진 신협 강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부산 부전시장 상인과 중소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잇따라 가졌다. 부전시장 상인들은 대형 마트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도부가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했고, 중소기업인들은 인

력난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실시중인 경제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총선 승리를 통해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다.

지도부는 시장을 직접 돌며 민심을 살핀 뒤 시장에서 3000원짜리 최고기국밥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 자리에서 상인들이 “물건이 잘 안 팔린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등 고충을 토로하자, 한 대표는 “저희가 서민들을 위해 잘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핵심축으로 야풍(野風)을 일으켜 지역주의의 벽을 반드시 허물고 말겠다는 각오다. 부산과 경남을 가르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에 문재인 노무현대통령 이사장(사상구)과 문성근 최고위원(북·강서을),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부산진을), 서쪽에 노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김해을)과 송인배 전 청와대 행정관(양산) 등 4인방이 동서를 관통하는 PK라인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지도부가 18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늘은 광주로

### 민주통합 최고위원 회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가 19일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는다.

18일 민주통합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역 국회의원, 당직자 등은 이날 오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시 당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광주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양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변화와 간담회를 갖고 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 지도부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시장 상인 대표들과 오찬을 가질 계획이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새 지도부의 광주방문은 지난 15일 정당사상 유례 없는 시민참여 경선으로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된 데 대해 광주·전남 당원과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민주통합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4.11총선과 12.19 대선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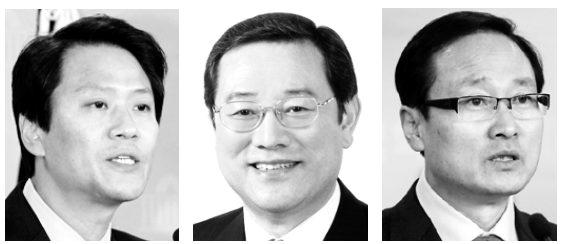
## 민주통합 사무총장에 임종석

### 정책의장 이용섭·비서실장 홍영표씨

민주통합당은 18일 당 사무총장에 임종석 전 의원, 정책위의장에 이용섭 의원, 당대표 비서실장에 홍영표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임 신임 사무총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장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지낸 대표적 486(나이 40대, 1980년대 대학 입학, 1960년대 출생) 정치인으로 16, 17대 의원을 지냈다.

오종식 대변인은 “당 사무총장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실무를 챙겨야 하는 자리”라며 “재선 의원을 지내



임종석 총장, 이용섭 의장, 홍영표 대변인

경험이 많은데다 정치적 감각과 기획력이 뛰어난 임 전 의원이 제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총장이 삼화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 대변인은 “삼화저축은행 사건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의 동생 박지만씨를 비롯해 여러 권력핵심

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비리 사건으로 임 총장은 회색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신임 정책위의장은 국제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대표적 정책통이며 홍영표 신임 비서실장은 대우그룹 노조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연구원소장 등을 지낸 노동전문가로 2009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번에 임명된 임 총장(장흥)과 이 의장(함평), 홍 비서실장(전북 고창)이 모두 호남 출신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비서실장에는 예초 우상호 전 의원이 유력했지만 우 전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는 지역구에 좀 더 신중을 써야 한다는 것으로 고사해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변인은 “조정식 의원이 유력하다. 전략홍보실장에는 박선숙 백원우 의원의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4.11 총선 현장

### 장병완, 남구청과 정책협의회

민주통합당 남구지역위원회(위원장 장병완)는 18일 남구청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통합당 남구지역위원회는 이날 남구청 회의실에서 장병완 국회의원과 최영호 남구청장, 시·구 의원, 남구청 실·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과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조도시 건설’ 등 을 구정운영 7대 정책과제와 남구 종합청사 이전 건립 등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 임현모 “북구 민주교육센터 건립”

임현모 민주통합당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18일 북구 윤정동 5·18 국립묘지 입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청소를 한 뒤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중심에 서서 바른 길로 이끌어 왔고, 특히 광주 북구는 전남대와 광주역사, 5·18 국립묘지 등이 있는 민주주의의 중심지”라며 “북구에 민주시민주교육센터와 다문화 패밀리센터를 건립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도시 조성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영록 “쌀값 하락 유인책 철취를”

민주당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쌀값 하락을 유인하기 위해 60만톤을 방출할 계획”이라며 “이는 FTA 최대피해자인 농촌·농민을 두 번 죽이는 반농·살농정책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가 넘는 소비자물가상승 원인이 구제역, 수입원자재 폭등 등 외부조건에 의한 것임에도 쌀·배추 등 농산물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 김명진, SNS활용 선거운동

김명진 민주통합당 남구 예비후보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사무소에 자원봉사자인 5명의 팀원들로 ‘폭풍 SNS팀’을 구성해 스마트폰 주요 사용자인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폭풍 SNS팀’은 웹툰 형식의 ‘됐다. 김명진’과 인기 TV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을 패러디한 ‘무한 명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mjkyoucando>)과 블로그(<http://blog.naver.com/youcando2012>) 통해 볼 수 있다.



### 김성숙, 광주 서구 을 출마선언

김성숙 전 광주시의원은 18일 “생활을 책임지는 정치, 봉사정치는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며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광주 서구 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시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 정치인을 키우지 못하는 광주의 정치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남녀차별이 없고 균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광주의 여성지도자는 더 많이 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새로운 국민정당 시대에 성실하고 지역민과 함께 숨 쉬는 참된 지역인권이 인정받고 검증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 국령애 “여성 전략공천해야”

국령애 민주통합당 장흥·강진·영암 예비후보는 18일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은 지역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장흥·강진·영암 지역구에 여성을 전략공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 후보는 “민주진보개혁세력의 집권플랜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최대의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 정남준 “정부 복지부담 차등화”

정남준 무소속 서구 을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등 전국 6대 광역시장이 0~2세 유아보육료의 정부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0~2세 아동 보육료 지원 등 복지분야 확대는 환영할 만 일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쏟아내는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한 정부의 부담비율 차등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김영득, 순천 국회의원 출마 선언

김영득(53)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18일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1일 총선에 순천시 선거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순천을 환경·경제중심의 매력도시, 문화·교육중심의 희망도시, 건강·복지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매산고와 순천대를 졸업한 그는 민주당 청년위원장, 열린우리당 정무조정실장, 혁신과 통합 추진위원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 원광대학교

WONKWANG UNIVERSITY



## 원광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참된 힘은 지성과 덕성의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과학과 도학을 겸비하여 미래 문명사회를 창조하고 주도하는 힘의 중심

### 2012학년도 원광대학교 편입학 모집

- 모집인원 | 일반편입학 : 369명  
학사편입학 : 208명 이내
- 원서접수 | 인터넷 인문사회, 자연계열 2012. 1. 5(목) ~ 1. 25(수)
- 장 학 금 | 일반편입학 인문사회/자연계열  
전형료 및 입학금 면제, 수업료 100%감면(1학기)
- 입학상담 | 원광대학교 입학관리처 063-850-5161~3 / www.wku.ac.kr